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중고등부:** 뉴욕/뉴저지 지역 교회들의 배구대회가 6월 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중고등부 연합집회(YouthWave Conference)**
  - Speaker: Pastor Edwin Kim
  - 시간: 5월 18일 (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AWCA)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 **2018 야외예배**
  - 시간: 5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Croton Point Park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5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김민아 집사 (시 104:24-34, 35b)

이번 주 친교: 임미숙 집사, 김은영 집사

다음 주 친교: 안정자 권사, 한주루 권사

제18권 19호

2018년 5월 13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김종한** 장로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 10장(통34장) 전능왕 오셔서(Come, Thou Almighty King)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Psalm) 1편 ----- 권순일 집사

찬양(Choir) ----- “어머님 노래”(Song for Mother's Day)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and Announcements)-----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요일(1st John) 4:7-12** -----인도자

설교(Sermon)----- **“어머니의(하나님의) 사랑”**

**A Mother's (God's) Love** ----- Edwin Kim 전도사

\*찬송(Hymn) ---- 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The Love of God) ----다함께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시편 92편)**

시편 92편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즉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간 사람의 간증과도 같은 시편입니다.

안식일의 시편이란 부제가 붙은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영광의 찬양 되도록 구속하셨습니다(엡 1:3-14). 에덴 동산에서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회복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진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칭찬을 원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좋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두렵고 싫습니다. 똑같은 오른 팔로 하신 놀라운 일이 의인에게는 구원의 은총이라서 기쁘고 즐거운 반면 악인에게는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누구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 없이 유일한 권위와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의인도 변성하고 악인도 형통하지만 여호와와 뜰에 심겨진 의인의 형통은 영원한 반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이고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대접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해주신 일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해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즐거워합시다(롬 5:1).

그래서 늙어서도 형통한 이 시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 반석이시며 한번도 자기에게 불의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편의 길을 간 사람의 증거입니다. 1-3절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마지막 절에서는 그 인생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증인이라면 말로서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좋고 높으시다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평생에 한 번도 불의한 적이 없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으신 거룩과 사랑과 은총을 증거합니다.

같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기 멀리 있는 길을 많이 간 사람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과 동행함을 즐겨워하는 사람이 길을 가는 사람이고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